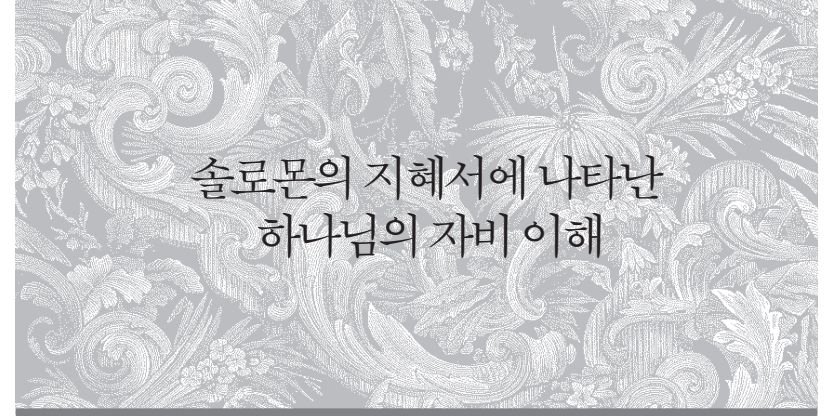




#### ▶ 외경문헌 연구 ◀

천사무엘(한남대) 솔로몬의 지혜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 이해



## 솔로몬의 지혜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 이해

천사무엘(한남대)

### 1. 서론

솔로몬의 지혜서는 지혜서라고도 불리는데(이하 지혜서라 칭함) 인간을 두 부류로 구분한다. 의인과 악인이다(3:1-5:23). 의인은 지혜를 따라 살고 내세에서 영혼불멸이라는 보상을 받는 반면(3:1-3; 5:15), 악인은 어리석음만 추구하다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이라는 심판도 받는다(4:19; 5:23). 이것은 지혜서 저자(이하 저자라 칭함)가 인과응보의 법칙을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까지 적용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생에서 인간행동의 책임에 대한 결과를 모두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헬라철학의 영혼불멸 사상을 도입하여 그 법칙의 타당성을 제

시한 것이다.<sup>1)</sup>

지혜서가 인간의 행동을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이해하지만,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인간의 삶에 관여하면서 “자비”를 베푼다.<sup>2)</sup>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자비에도 불구하고 왜 악인이 멸망하는가라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악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데도 그의 삶이 멸망으로 끝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다.

지혜서의 자비사상에 대한 학자들의 직접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보편주의와 특수주의, 결정론과 자유의지 등을 다루면서 이를 언급한다. 이들은 지혜서에 보편주의적 사고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악인들에게도 공평하게 주어진다는데 동의한다.<sup>3)</sup> 창조주 하나님은 악인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미래가 이미 결정되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한다.<sup>4)</sup> 즉 저자는 인간의 운명에 대해 결정론(determinism)의 입장을 취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자유의지(free will)를 허용하느냐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혜서는 인간의 성품이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 것처럼 언급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비로 인한 회개의 가능성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레이더

(Reider)는 지혜서에 결정론적인 표현과 그에 상반된 표현이 동시에 나온다고 지적한다. 즉 피조물에는 죽음의 독소가 없다(1:14)고 하면서도 악인의 사악함은 선천적이라(12:10)고 언급한다는 것이다.<sup>5)</sup> 윈스턴(Winston)도 지혜서 저자가 결정론과 자유의지를 동시에 제시하는 모순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태도가 지혜서를 비롯한 고대 유대 문서의 저자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고 단순히 하나님의 신비로 여겨졌다고 주장한다.<sup>6)</sup> 고대 저자들에게는 오늘날처럼 이러한 불일치가 문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라베(Grabbe)도 저자가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철학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고심했다는 증거가 없고 현대인은 그러한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sup>7)</sup> 이와 같은 학자들의 지적처럼 지혜서에 결정론과 자유의지라는 개념이 모순되게 나온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하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면서 저자의 자비 사상과 그 사회적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지혜서 11장 15절-12장 27절에 대한 주석적 분석과 해석을 통해 저자의 자비 사상을 살펴보고 이를 당시 사회적 상황에 적용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연관된 지혜서의 다른 본문들도 고려한다. 이러한 연구는 저자의 자비 사상을 구체적인 역사적, 사회적 상황 속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2. 본문(11:15-12:27)의 문학적 구조와 위치

지혜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분인 1장 1절-6장

\* 본 논문은 2015년도 한남대학교 교비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1) 천사무엘, 『신구약중간시대의 성서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220-27.

2) 지혜서에서 자비를 언급하는 헬라어는 “엘레오스”(자비/mercy; 3:9; 4:15; 12:22) 혹은 “엘레에이스”(당신은 자비로우시다/You have mercy; 11:23) 등인데,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가엾게 여기고 은혜를 베푼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신약성서에서 이 단어들 이 하나님의 자비를 언급할 경우, 보잘 것 없는 하찮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호의나 기회, 구원 등을 베풀 때에 사용된다(롬 9:15, 16, 18; 11:32; 고전 7:25; 고후 4:1; 딤후 1:13, 16; 빌전 2:10). 구약성서에서 이에 상응하여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함” 혹은 “라흠”이다(시 103:13; 사 49:15; 렘 31:20). 이에 대해서는 Sze-Kar Wan, “Mercy, Merciful,” K. D. Sakenfeld (ed.), *The New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Vol. 4 (Nashville: Abingdon, 2009), 46-49을 보라.

3) D. Winston, *The Wisdom of Solomon* (Garden City: Doubleday, 1979), 43 이하 참조.

4) 요세푸스는 결정론과 자유의지에 대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등의 견해를 제시하는데, 이 문제는 당시 유대교의 주요 쟁점이었다. Josephus, *Jewish Antiquities*, 13.171-73.

5) J. Reider, *The Wisdom of Solomon*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7), 153.

6) D. Winston, *위클리*, 46-58.

7) L. L. Grabbe, *Wisdom of Solomon*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63.

21절은 지혜의 선물로서 주어지는 영혼불멸을, 둘째 부분인 6장 22절-10장 21절은 지혜의 본질과 능력을, 셋째 부분인 11-19장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지혜의 역할을 언급한다. 출애굽 전승을 재해석하는 셋째 부분에는 두 개의 여담(digression)이 들어 있는데, 하나님의 자비를 다루는 11장 15절-12장 27절과 우상숭배를 다루는 13-15장이다. 이 두 개의 여담은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본 논문은 전자인 11장 15절-12장 27절에 초점을 맞춘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저자의 견해가 집중되어 나오기 때문이다. 저자는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답하고 있다. 하나님은 왜 그리고 어떻게 악인들에게도 자비를 베푸는가? 하나님의 자비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왜 파멸하는가?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의인들이 얻는 교훈은 무엇인가?

본문은 다음과 같이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sup>8)</sup>

- 1) 11:15-12:2 이집트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
  - (1) 11:15-20 자비의 방법
  - (2) 11:21-12:2 자비의 이유
- 2) 12:3-18 가나안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
  - (1) 12:3-11 자비의 방법
  - (2) 12:12-18 자비의 이유
- 3) 12:19-22 하나님의 자비가 의인들에게 주는 교훈
- 4) 12:23-27 악인들에 대한 최후 심판의 불가피성

첫째 단락(11:15-12:2)은 하나님이 이집트인들에게 베푸시는 자비의 방법과 그 이유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자비의 보편성을 제시한다. 둘

8) D. Winston, 윗글, 11, 230-44; M. Gilbert, "Wisdom of Solomon," M. E. Stone (ed.), *Jewish Writings of the Second Temple Period* (Minneapolis: Fortress, 1984), 306.

째 단락(12:3-18)은 가나안인들에게 베푸시는 자비의 방법과 그 이유를 다루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징벌의 관계성을 언급한다. 셋째 단락(12:19-22)은 하나님이 자비를 통해서 의인들에게 주시려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언급하면서 자비의 교육적 기능을 제시한다. 넷째 단락(12:23-27)은 본 여담의 요약으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제시한다.

본문에서 의인은 이스라엘인들이고 악인들은 이집트인들과 가나안인들이다. 저자가 이와 같이 의인과 악인의 실례를 언급하는 이유는 출애굽 전승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본 여담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즉 저자는 11-19장에서 고대 이스라엘의 출애굽, 광야생활, 가나안 정착 등의 전승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의인으로 그리고 이집트인들이나 가나안인들을 악인으로 여기면서 이 둘을 대조하는데, 본 여담에서도 이러한 대조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본 여담의 바로 앞 본문(11:1-14)에서 저자는 이스라엘과 이집트인들을 대조하면서 전자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의인으로, 후자를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악인으로 묘사한다. 그리하여 전자는 광야의 바위에서 나오는 물로 갈증을 해소했으나, 후자는 나일강물이 피로 변하여 물이 있어도 목마르는 고통을 당했다고 언급한다. 전자는 물로 구원을 얻었지만, 후자는 물로 징벌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조의 연장선상에서 본 여담은 하나님의 자비의 특성을 제시한다. 즉 저자는 본 여담에서 하나님의 자비의 방법과 목적을 제시하면서 악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벌이 무자비하거나 무계획적이지 않고 신중하고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또한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도 무조건적이거나 부당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이제 이와 같은 문학적 특징을 가진 본문을 각 단락별로 살펴보면 저자의 자비사상을 탐구한다.

### 3. 하나님의 자비의 보편성(11:15-12:2)

지혜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 사상에는 보편주의적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공평하게 자비를 베푸신다고 언급한다.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저자는 11장 15절-12장 2절에서 이집트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실례로 들면서 이에 대한 대답을 제시한다.

저자에 의하면, 이집트인들은 뱀이나 추한 짐승 등을 숭배했다(11:15b). 이것은 그들이 악하고 어리석은 생각에 미혹되었기 때문이다(11:15a). 이들의 짐승숭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당장에 파멸시키기 위해 자신의 강력한 힘을 사용하거나 사나운 동물들을 보내지 않았다(11:17-20). 오히려 출애굽기의 열 가지 재앙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등 힘없는 동물들을 때로 보냈다(11:15c).<sup>9)</sup> 이러한 재앙은 이집트인들을 당장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 지은 것으로 징벌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11:16). 즉 하나님은 동물을 숭배하는 악인들에게 동물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것이 잘못임을 깨닫게 하려 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회개의 기회를 악인들에게 주셨는가? 악인들을 당장 파멸시키지 않고 스승이 제자를 대하는 것처럼 교육적으로 대처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저자에 의하면, 악인에게도 하나님의 자비가 주어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자

9) 슈벡크-브레슬러는 11장 15c절과 16장 3b절이 출애굽기 7장 26절-8장 11절의 개구리 재앙을 암시한다고 주장한다. U. Schwenk-Bressler, *Sapientia Salomonis als ein Beispiel frühjüdischer Textauslegung: Die Auslegung des Buches Genesis, Exodus 1-15 und Teilen der Wüstentradition in Sap 10-19*(Frankfurt am Main: Peter Lang, 1993), 151. 그러나 이 두 구절이 개구리 재앙만을 암시한다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개구리 재앙을 포함한 동물 재앙들을 암시한다. S. Cheon, *The Exodus Story in the Wisdom of Solomon: A Study in Biblical Interpretation*(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42-43.

비로우시고”(11:23a) 자비를 베푸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를 저자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고”(12:16), “원하면 언제든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11:21),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12:18)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무한한 힘과 능력이 있음을 뜻한다. 저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언급하면서 이를 그분의 자비와 연관시킨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보편적 자비의 원천은 그분의 무한한 힘이라고 언급한다.<sup>10)</sup> 하나님은 무한한 힘, 즉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본문에서 왜 하나님의 무한한 힘이 그분의 자비의 원천이 되는지 그 이유를 언급하지 않는다.<sup>11)</sup> 즉 힘과 자비의 인과관계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마도 저자가 권력을 가진 통치자의 최고 미덕 중 하나를 그보다 더 약한 존재에 대해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으로 여겨진다(12:19). 즉 막강한 힘을 가진 자가 연약한 인간을 무자비하게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의 사용을 절제하여 오래 참으면서 자비를 베푸는 것을 지혜로운 통치자의 최고의 미덕에 속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다(7:22; 11:24).<sup>12)</sup> 그리하여 저자는 무한한 힘을 보편적 자비의 근거 중 하나로 삼은 것이라 여겨진다.

둘째로, 하나님은 피조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다. 하나님의 자비는 창조주의 우주적(universal)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당

10) C. Larcher, *Le Livre de la Sagesse ou la Sagesse de Solomon*, Vol. 3 (Paris: Gabalda, 1985), 690; E. G. Clarke, *The Wisdom of Solom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3), 79.

11) 하나님의 힘과 자비를 결합시키는 문장들은 칠십인역 구약성서에서도 발견된다(시 62:11-12; 145:9; 집 2:18). 그러나 이 본문들은 하나님의 힘과 자비가 무한히 크다는 것을 의미할 뿐 본문처럼 인과관계로 언급하지 않는다.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도 “하나님의 탁월함과 힘은 광대하지만, 그 분은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Philo, *De Specialibus Legibus*, 1.308)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힘과 자비를 대조시키지만, 본문처럼 하나님의 힘을 자비의 원천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12) 그레는 “힘의 절정은 자제력”이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J. A. F. Gregg, *The Wisdom of Solom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09), 113; E. G. Clarke, *유클*, 81.

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당신이 창조하신 것을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미워했다면 결코 그것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11:24). 여기에서 저자는 악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는 이유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제시한다. 그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의 창조주이기 때문이다. 만약 하나님이 미워했다면 그것들은 어느 하나도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은 미워하는 것을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이 본래 선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로, 하나님은 피조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비를 베푼다. 창조주로서 창조세계가 유지되도록 관여하는 것이다.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어떤 것이 견뎌낼 수 있겠으며, 당신이 불러내지 않는 것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당신의 것이기에 당신은 모두를 아끼십니다.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 당신의 썩지 않는 영이 그들 모두 안에 있습니다”(11:25-12:1). 저자에 의하면, 하나님은 창조한 피조물을 방치하지 않고 지속되도록 아끼시고 보호하신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은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조물의 보존방식이 스토아 철학에서처럼 하나님의 영(spirit)이 자연에 내재(immanence)해 있기 때문이 아니다. 주님의 영이 모든 피조물에 들어 있다(12:1)거나 주님의 영이 세상에 가득하고 모든 것을 감싸고 있다(1:7)는 언급은 스토아 철학적인 표현방식이지만 범신론을 의미하지 않는다.<sup>13)</sup> 여기에서 “영”으로 번역된 헬라어 “프뉴마”는 “숨”(breath)이나 “정신”(mind)으로도 번역이 가능한데, 인간이나 자연이 살아 있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창조주의 힘이나 영향력을 나타낸다. 그리하여 하

13) D. Winston, *위글*, 104; C. Larcher, *위글*, 699-700. 가이어는 12장 1절이 완전한 범신론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지만 지혜서는 범신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J. Geyer, *The Wisdom of Solomon* (London: SCM, 1963), 105.

나님은 창조 세계가 계속 유지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로 인해 피조물은 유지되고 보존된다는 것이다.<sup>14)</sup>

이상과 같이 저자는 보편주의적 사고를 반영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제시한다.<sup>15)</sup> 즉 무한한 힘과 창조주로서의 사랑, 그리고 창조세계에 대한 보존의지 때문에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에는 창조질서와 지혜의 보편성 등을 가르치는 구약성서의 사상뿐만 아니라 만물의 자기보존능력과 질서 등을 제시하는 헬라철학 사상이 결합되어 있다. 이와 같은 유대교와 헬라사상의 결합은 중기 플라톤주의의 특징 중 하나이다.<sup>16)</sup>

저자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보편적 자비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피조물이 죄에서 벗어나 창조주인 자신을 신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악에 빠진 사람들을 조금씩 고쳐주시고, 당신은 그들이 잘못된 바로 그것들로 그들을 훈계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들이 악에서 벗어나 당신을 신뢰하게 하십시오. 오 주님!”(12:2). 저자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비록 악을 행할지라도 바로 심판하지 않고, 그들이 잘못된 것들을 사용하여 어떤 잘못을 했는지 깨닫게 하신다. 이러한 인과응보의 징벌 방법을 통해서(11:16) 하나님은 악인들이 쉽게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징벌 방법이 자비의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것을 나타낸다(11:20). 즉 하나님은 의인에게 베푸는 자비를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베풀고 그들도 의인들처럼 자신을 믿고

14) 지혜서 1장 14절에서도 하나님은 피조물의 보존자로 묘사되어 있는데, 만물의 자기 보존(self-preservation) 원리는 스토아 철학의 교리이다. D. Winston, *위글*, 108-109.

15) 지혜서의 보편주의(universalism) 사상의 실례들과 이에 대한 최근 학자들의 견해는 R. D. Chesnutt, “Covenant and Cosmos in Wisdom of Solomon 10-19,” S. E. Porter/J. C. R. de Roo (eds.), *The Concept of the Covenant in the Second Temple Period* (Leiden: Brill, 2003), 236-45를 보라.

16) 지혜서와 중기 플라톤주의의 관계에 대해서는 D. Winston, *위글*, 33-34를 보라.

신뢰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 4. 하나님의 자비와 징벌의 관계(12:3-18)

저자에 의하면, 악인들은 하나님의 자비에도 불구하고 멸망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자는 12장 3-18절에서 가나안인들을 실례로 들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자비를 베풀었는지(3-11절) 그리고 그러한 자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멸망했는지(12-18절)를 언급한다.

먼저, 저자가 제시하는, 하나님이 가나안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땅에 거주했던 가나안인들은 그곳에서 마술, 우상숭배, 자녀학살, 인육의 향연 등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행했다(12:3-6a).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당장 파멸하지 않았다.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모든 인간에게 베푸는 보편적인 자비를 베풀었던 것이다(12:8a).<sup>17)</sup> 이를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내어 그들을 당장 멸망시키거나 들짐승을 보내 끔찍하게 죽게 하거나 말씀 한마디로 파멸시키지 않았다(12:9). 오히려 말벌을 먼저 보내어 조금씩 징벌함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12:8b, 10a).<sup>18)</sup> 이집트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악한 생물 떼 재앙을 점차적으로 다양하게 보내신 것처럼(11:15-16), 가나안인들에게도 잘못을 깨달을 기회를 충분히 주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악한 생각은 고쳐지지 않았다(12:10).

가나안인들은 왜 하나님의 자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멸망했는가? 저자는 그들이 종족의 시작부터 악하고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

고 주장한다. 이집트인들은 이성이 없어 이성이 없는 짐승들을 통해 고통을 당했지만, 가나안인들은 기원부터 악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멸망했다는 것이다. “그들의 기원은 악하고, 그들의 사악함은 타고났으며, 그들의 사고방식은 영원히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은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씨는 처음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12:10bcd-11a). 여기에서 저자는 가나안인들이 본래부터 악한 본성을 가진 자로 창조되었으며 그들의 악한 씨가 유전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노아가 함에게 한 저주, 즉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바란다”(창 9:25)는 창세기의 내용을 해석하고 있다. 그리하여 가나안 족속은 그 기원부터 악했고 그 족속이 시작될 때부터 저주를 받았으며, 그들의 악한 생각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고 언급한다. 노아의 저주를 확대 해석하여 가나안인들의 악행을 종족의 기원과 연관시키면서 그 악행의 뿌리가 아주 깊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sup>19)</sup>

가나안인들이 비록 처음부터 악하게 창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본성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악하게 결정되었다고 저자가 주장하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즉 저자가 인간 본성에 대해 결정론적 사고를 가졌는가라는 것이다(3:12 참조). 저자는 비록 인간을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면서 악인은 그 기원에서부터 악하다고 언급하지만, 그들의 미래가 선천적으로 이미 결정되었다고 여기는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자비를 베풀고 회개의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악인도 징벌로 인해 멸망하지 않을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한다(12:10a). 따라서 저자에게 있어서 악과 죽음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지혜와 생명을 선택할 것인지의 문제는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선택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러기 때문에 악인은 전자를 택하

17)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언급에는 구약성서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형상(창 1:26)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 사상뿐만 아니라 스토아철학의 인간사랑 사상을 반영한다. C. Larcher, *유클*, 713.

18) “말벌”(출 23:28; 신 7:20; 수 24:12)은 히브리어 본문에서 “찌르이”인데, 칠십인역이 처음으로 “말벌”(스페카스)이라 번역했다.

19) D. Winston, *유클*, 241; C. Larcher, *유클*, 716-18. 어거스틴은 지혜서 12장 10-11절을 인용하면서 “원죄”(Original Sin) 교리를 주장했다. Augustine, *On Marriage and on Concupiscence*, 2.2.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본문 이해를 반영하는데, 본문은 인간의 타락이나 원죄 개념 등을 다루지 않는다.

여 과멸의 길을 가지만(1:16; 2:24), 의인은 후자를 택하여 불멸의 길을 간다(3:5, 9; 6:20). 이것은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free will)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문이 제시하는 가나안인들의 악행과 그로 인한 멸망도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선택의 문제로 이해될 수 있다. 멸망을 피하기 위한 회개는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근거해서 가나안인들의 기원이 악하다는 본문의 내용은 문자적이 아니라 수사학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본문의 수사학적 상황에서 그러한 표현은 가나안인들의 본성에 대한 결정론적 진술이 아니라 그들의 집단적이고 문화적인 악행의 역사가 매우 오래되어 돌이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과장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아셨다는 표현도 가나안인들의 미래에 대한 결정론적 묘사가 아니라 패러독스(paradox)적인 언급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악인들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자 했다.<sup>20)</sup> 이것은 저자가 본문에서 악인의 본성과 운명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제시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가나안인들의 끝없는 악행과 대조시키면서 수사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 하나님의 자비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자신들의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저자의 주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나타낸다(12:12-18). 여기에는 하나님이 심판의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드러낸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즉 힘을 함부로 사용하여 징벌하는 세상의 왕이나 폭군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

20) 이러한 표현의 실례는 구약성서에도 등장한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내용이다(출 4:21; 9:12; 10:20; 14:8).

들, 그리고 자신에게 무례하게 대항하는 사람들을 심판할 때만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징벌하신다는 것이다(12:17).<sup>21)</sup>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시비를 걸거나 문제시할 수 없을 만큼 항상 정의롭고 공평하다는 것이다.

## 5. 하나님의 자비의 교육적 기능(12:19-22)

저자는 12장 19-22절에서 하나님의 자비는 의인들을 가르치는 교육적 역할도 한다고 언급한다. 여기에서 의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신의 독자들인데 저자는 하나님의 자비가 다음과 같은 교훈을 그들에게 준다고 제시한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비는 의인에게 인간을 사랑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12:19ab). 저자에 의하면, 의인은 악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의인은 자신의 적대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거나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의인의 자격이 없다(7:22). 이것은 의인이 지혜를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지혜서에서 “지혜는 사람을 사랑하는 영”(1:6a)이기 때문이다. 지혜를 가진 자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박애(philanthropy)사상은 구약성서뿐만 아니라 (레 19:18) 스토아철학에서도 강조하는 교훈이었다.<sup>22)</sup> 다른 한편, 의인은 인간을 사랑해야 한다는 언급은 저자가 악인으로 여기는 적대자들

21) 이러한 사고는 민수기 14장 18절에도 나온다.

22) J. M. Reese, *Hellenistic Influence on the Book of Wisdom and its Consequences* (AB 41;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70), 116. 지혜서에는 명사인 “필안쓰로피아”(인간사랑)는 나오지 않고, 형용사인 “필안쓰로포스”(인간적인/자애로운)가 사용되는데(1:6; 7:23; 12:19), 전자는 중기 스토아학파가 중요하게 여겼던 교리이다. D. Winston, *유클, 43.*

을 반박하는 것이기도 하다.<sup>23)</sup> 즉 그들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고통을 주며 괴롭히는데, 이것은 그들이 미덕을 모르는 어리석고 악한 자들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의 자비는 의인들에게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12:19cd). 저자에 의하면, 의인도 악인처럼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악인과 다르다. 이것은 의인이 죄가 전혀 없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면서 온전한 인간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 의인도 잘못이 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12:21-22). 그렇지만 그 처벌은 매우 신중한 하나님의 결정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족장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좋은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다(12:21). 계약의 결과로 인한 하나님의 신중한 심판은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하나님은 계약을 맺은 자기 백성도 죄에 상응하는 심판을 하는데, 악인의 죄악을 징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다.

셋째로, 하나님의 자비는 의인이 심판할 때와 심판받을 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를 훈계하시지만, 우리 원수들은 만 배나 더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심판할 때에 당신의 선하심을 생각하고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자비를 구합니다”(12:22). 여기에서 “훈계하다”(파이듀온)과 “깨닫게 하다”(마스티고이스)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sup>24)</sup> 그리하여 두 단어 모두 가벼운 처벌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게 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

23) C. Larcher, *원글*, 731.

24) 레이더와 클라크는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언급하면서 전자는 의인, 후자는 악인을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J. Reider, *원글*, 156; E. G. Clarke, *원글*, 86. 그러나 그러한 차이를 고려할 경우 하나님의 심판의 공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의인과 악인에게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것은 마치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채찍질 하는 것처럼 조금씩 주어지는 징벌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도록 훈계하는 것을 의미한다(신 8:5; 잠 3:11-12). 이러한 점진적인 징벌을 받을 때 의인은 악인보다 더 빨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지만, 악인은 의인보다 만 배나 더 징벌을 받을지라도 깨닫지 못한다(12:22a).

이와 같이 잘못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자비는 의인이 다른 사람을 심판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12:22b). 이것은 인간을 사랑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적대자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에게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기대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의인은 심판을 받을 때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12:22c). 회개와 용서의 기회가 있다는 것은 죄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5)</sup>

## 6. 하나님의 자비와 최후 심판의 불가피성(12:23-27)

저자에 의하면, 악인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저자는 그 이유를 제시하기 위해 본 여담의 마지막 단락인 12장 23-27절에서 우상숭배자들에 대한 징벌을 실례로 든다. 여기에서 우상숭배자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집트인들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본 여담의 첫 단락인 11장 15-20절에서 이집트인들을 동물숭배를 여기기 때문이다. 저자는 본 여담의 마지막 단락에서 이집트인들의 동물숭배 주제를 더욱 발전시켜 최후 심판의 불가피성을 제시한다.

저자에 의하면, 하나님은 악인들이 죄를 지을 때 사용한 것을 징계

25) 이런 의미에서 12장 22절은 12장 19절의 가르침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C. Larcher, *원글*, 737.



의 도구로 삼았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집트인들을 징벌하실 때 그들이 숭배하는 가장 천하고 추한 동물들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했다(12:23, 27ab). 이러한 징벌은 그들이 단번에 죽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11:17-19; 12:9). 오히려 그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동물들을 보내어 괴롭힘을 당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어린 아이들이 속아서 조롱을 당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그들도 속아 넘어가서 동물들을 숭배함으로써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한 것이다(12:24-25). 그들은 동물을 신으로 여길 만큼 이성이 없고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성이 없는 아이들의 장난과 같은 징벌을 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징벌은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하도록 유도하는 가벼운 처벌로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와 배려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12:26). 즉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을 때까지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못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최후 심판을 당할 때에서야 비로소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았다(12:26-27).

이상과 같이 저자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오랫동안 참고 배려하면서 자비를 베푼 뒤에 행해진 것임을 강조한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분노의 결과가 아니라 수많은 자비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완고함 때문에 행해지는 불가피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것은 심판의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악인은 회개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졌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상숭배가 뿌리 깊은 가정과 문화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사람에게도 자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7. 지혜서 자비사상의 특징과 사회적 기능

### 1) 자비사상의 특징

구약성서에서 자비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 하나이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출 34:6)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자비에 대한 이해가 없이 구약의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신 4:31; 시 103:8; 111:4).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은 계약의 범위 내에서 자비를 베푼다(시 103:13, 17-18; 사 54:10).<sup>26)</sup>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계약이 파괴될 경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더 이상 자비를 베푼다 않는다(사 47:6; 렘 21:7). 이방인의 경우 하나님의 자비는 그의 가르침을 확실하게 배우고 따를 때에만 예외적으로 주어진다(렘 12:14-17).<sup>27)</sup>

지혜서도 계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주어진다라는 구약의 전통을 따른다. 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 관계를 여전히 중요시하고 있다(12:21; 18:22).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계약 관계에서만 주어지는 것으로 국한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무한한 힘을 가진 분이자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의 보존을 원하시기 때문에 악인에게도 공평하게 자비를 베푼다고 언급한다. 의인인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상숭배를 하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는 공평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이다. 이것은 저자가 보편주의적 사고를 반영하면서

26) Sze-Kar Wan, 윗글, 46-47; E. R. Achtemeier, "Mercy, Merciful," G. A. Buttrick (ed.),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Vol. 3 (Nashville: Abingdon, 1962), 352-53. 신명기와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도 계약 관계로 이해된다. 최중원, "신명기의 '사랑과 계약'에 대한 새로운 연구," 『구약논단』, 52 (2014), 44.

27)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이란 말은 페르시아와 헬레니즘 시대를 거치면서 유대인과는 다른 민족적-종교적 정체성을 지닌 자 즉 비유대인을 지칭했는데 신명기서에처럼 더 이상 사회적 약자는 아니었다. 라이너 케슬러, "히브리 성서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이방인," 『구약논단』, 51 (2014), 18.

하나님의 자비 행위의 범위를 창조세계 전체로 넓혔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8)</sup> 그러나 지혜서는 하나님의 자비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우상숭배 등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멸망할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자비의 범위를 무한히 넓히지 않는다. 즉 구약성서의 자비 개념을 계약백성의 한계를 넘어 이방인들에게로까지 확장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우상숭배나 불신앙을 묵과하지 않는다는 구약의 기본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혜서는 구약의 전통사상인 인과응보의 법칙도 포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의 방법에 인과응보의 법칙이 반영되어 있다고 여긴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동물숭배자들에게 동물제물을 조금씩 내려 점점 괴롭게 함으로 그들이 우상숭배가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의 방법이 곧 그분의 자비의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자비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올바른 판단력 즉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혜를 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매하여 최후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3:11; 6:20). 이것은 악인의 운명이 이미 악하게 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악인도 의인처럼 자유의지가 있어서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악인의 본성과 기원이 악하다는 지혜서의 표현(12:10-11; 13:1)은 인간의 운명에 대한 결정론적 진술이라기보다는 아무리 자비를 베풀어도 돌이키지 않는 악인들의 모습을 과장되게 묘사하는 수사학적 표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그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철학적 분석이라기보다는 역사적 상황 가운데서 적대자들을 과장해서 표현하는 문학적 묘사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특징을 가진 자비사상은 저자의 독자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유대인을 대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교훈적이고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28) 지혜서 18장 21-24절도 아론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넘어서 우주의 중재자로 묘사한다.

## 2) 자비사상의 사회적 기능

하나님의 자비를 강조하는 구약의 전통은 초기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도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자비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되었다(눅 6:36; 10:37; 갈 5:22; 골 3:12).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는 것같이 그를 믿는 사람들도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예수의 가르침은 이러한 전통을 반영한다(눅 6:36). 지혜서도 자비의 하나님을 제시하면서 독자들에게 인간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가르친다(12:19, 22).

지혜서의 자비사상은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라는 일반적인 교훈을 담고 있지만, 저자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적용할 때 구체적인 사회적 기능을 탐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지혜서의 역사적 상황을 기원후 38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일어난 반유대인 폭동 직후로 여긴다.<sup>29)</sup> 당시 알렉산드리아 유대인 공동체는 이 폭동으로 인해 집, 상점, 회당 등이 불에 타고 파괴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대표단을 직

29) 지혜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D. Winston, *유태교*, 20-25; S. Cheon, *유태교*, 108-16을 보라. 지혜서의 저작연대를 주전 1세기 후반으로 여기는 학자들도 있다. 그들은 이 책이 1세기 후반 옥타비아누스(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로마 정복과 유대인들에 대한 인두세(poll tax) 부과와 상황에서 쓰였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사회적 반목을 반영하기보다는 문화적 경계를 강조한다고 주장한다. B. J. L. Peerbolte, "The Hermeneutics of Exodus in the Book of Wisdom," R. Roukema/B. J. L. Peerbolte/K. Spronk/J.-W. Wesselius (eds.), *The Interpretation of Exodus: Studies in Honour of Cornelis Houtman* (Leuven, Paris, Dudley MA: Peeters, 2006), 99; M.-F. Baslez, "The Author of Wisdom and the Cultured Environment of Alexandria," A. Passaro/G. Bellia (eds.) *The Book of Wisdom in Modern Research: Studies on Tradition, Redaction, and Theology* (Berlin: de Gruyter, 2005), 49. 그러나 이 책의 저작 장소를 알렉산드리아로 볼 경우, 그러한 주장은 이집트인이나 소돔인 등에 대한 극단적인 비난에 대한 언급을 이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첫 번째 반유대인 폭동이 일어난 주후 38년 전까지 그곳에서는 반유대인 정서가 물리적이지 않고 문서적 차원에서만 있었기 때문이다. 주전 30년 로마의 이집트 합병과 이후 유대인들을 포함한 이집트인들에게 인두세 부과 등은 알렉산드리아 유대인들에게 변화를 주었지만 정치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과 위기는 아니었다. 따라서 지혜서의 마지막 저작 가능 연대는 기원후 38년 직후로 여겨져야 한다. 다른 한편, 글릭스만은 지혜서의 저작연대를 기원전 1세기 후반 아우구스투스 황제시대부터 기원후 1세기 전반부인 41년 사이로 안전하게 추정하지만, 칼리굴라 시대로 여겨지는 내용들에 대한 대답이 될 수는 없다. A. T. Glöckler, "Wisdom of Solomon 10: A Jewish Hellenistic Reinterpretation of Early Israelite History through Sapiential Lenses," (Ph.D. Diss.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2010), 31.

접 로마로 보내 황제에게 탄원할 만큼 위기에 처해 있었다.<sup>30)</sup>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지혜서가 제시하는 자비사상의 사회적 기능은 무엇이었겠는가?

첫째로, 지혜서의 자비사상은 박해를 경험한 유대인 공동체에게 적대자들의 정체성을 규정하게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즉 박해자들은 그들의 힘을 오용하여 이방인이자 약자를 괴롭히는 어리석음과 악행을 범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이성 없는 동물을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이 숭배하는 동물들처럼 이성이나 올바른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유대교가 가르치는 인간 사랑이나 자비의 미덕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들이 우상숭배를 계속하는 한 회개하고 마음이 올바르게 변화될 것이라고 바라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박해자들과 그들의 종교에 대한 이와 같은 시각은 독자들로 알렉산드리아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적대자들의 우상들과는 달리, 유대교의 하나님은 가장 이성적이고 사려 깊으며 관대하고 자비로우신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믿는 신을 따라서 박애, 자비, 지혜, 절제 등의 사고와 미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7:15-8:1). 이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유대교와 유대인이 이방인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의식을 갖게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로, 지혜서의 자비 사상은 박해를 당한 유대인들에게 적대자들에 대한 증오와 보복을 자제하게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박해의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에 대해서 분노와 적개심 등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한 증오심은 또 다른 충돌과 보복으로 이어지고 가해자들의 즉각적인 파멸을 기대하게 한다. 그러나 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분의 자비 때문에 악인에 대한 즉각적인 보복이나 멸망으로 이어지지 않고 조금씩 서서히 진행된다고 제시한다. 그리하여 어리석은 악인들은 그들의 어

30) 이에 대해 알렉산드리아의 필로(Philo)는 *In Flaccum*과 *Legatio ad Gaium*에서 자세하게 묘사한다.

리석음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박해자들에게 즉각 보복하거나 당장의 파멸을 기대하지 않게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오히려 적대자들은 어리석고 이성이 없기 때문에 최후 심판으로 인해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게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로, 지혜서의 자비 사상은 실의에 빠진 독자들에게 희망을 갖게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박해상황에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받는 고통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유대교의 전통적인 인과응보 사상으로 구약성서에서 유다의 멸망에 적용되었다(왕하 21:10-15; 23:26-27; 렘 15:4). 그러나 저자는 그러한 인과응보적인 징벌이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이라고 제시한다. 더군다나 그는 하나님이 족장들과 맺은 계약을 언급하면서 좋은 것을 가득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회개하는 그의 백성에게 여전히 유효하다고 암시한다. 이러한 사고는 당시 박해로 인해 고통 받는 유대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을 것으로 여겨진다(12:19).

## 8. 결론

지혜서는 출애굽 전승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여담(11:15-12:27)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다룬다. 이를 위해 지혜서는 이집트인들과 가나안인들을 악인들로 여기면서 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최후 심판을 피할 수 없었는지를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구약성서와 유대교에서 정통으로 여겨지는 인과응보 사상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헬라철학에 나오는 보편주의 사상도 끌어들이는다.

저자에 의하면, 하나님은 무한한 힘을 가진 분이자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에게 자비를 베풀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공평하고 정

당하게 자비를 베푸신다. 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는 방법은 징벌을 내리는 방법이기도 한데 죄를 지은 것으로 징벌을 내려 그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동물을 숭배하면 동물제앙을 내려 괴롭게 함으로 그들의 동물숭배가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괴롭힘은 조금씩 계속되는데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비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멸망한다. 이것은 악인이 악하게 태어나서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악인도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성 없는 동물을 숭배하여 판단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운명에 대해 저자의 결정론적인 묘사는 철학적 분석이 아니라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여겨져야 한다.

지혜서의 자비 사상은 주후 38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반유대인 폭동으로 고통당하는 독자들인 유대인들에게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게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즉 유대 종교의 가르침은 적대자들의 그것보다 우월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그들보다 더 지혜롭고 이성적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적대자들에 대한 보복을 억제하게 하고 그들의 즉각적인 파멸을 기대하지 않게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그들의 현재적 고통은 최후 심판의 결과가 아니라 회개와 박애를 가르치기 위한 자비의 결과이고,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은 계약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믿음을 갖게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 9. 참고문헌

라이너 케슬러, “히브리 성서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이방인,” 『구약논단』 51 (2014), 12-30.  
천사무엘, 『신구약중간시대의 성서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최종원, “신명기의 ‘사랑과 계약’에 대한 새로운 연구,” 『구약논단』 52 (2014), 42-72.

Achtemeier, E. R. “Mercy, Merciful,” G. A. Buttrick (ed.),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Vol. 3 (Nashville: Abingdon, 1962), 352-54.

Baslez, M.-F. “The Author of Wisdom and the Cultured Environment of Alexandria,” A. Passaro/G. Bellia (eds.), *The Book of Wisdom in Modern Research: Studies on Tradition, Redaction, and Theology* (Berlin: de Gruyter, 2005), 33-52.

Cheon, S. *The Exodus Story in the Wisdom of Solomon: A Study in Biblical Interpretation*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Chesnutt, R. D. “Covenant and Cosmos in Wisdom of Solomon 10-19,” S. E. Porter/J. C. R. de Roo (eds.), *The Concept of the Covenant in the Second Temple Period* (Leiden: Brill, 2003), 223-49.

Clarke, E. G. *The Wisdom of Solom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3).

Gilbert, M. “Wisdom of Solomon,” M. Stone (ed.), *Jewish Writings of the Second Temple Period* (Minneapolis: Fortress, 1984), 283-324.

Glicksman, A. T. “Wisdom of Solomon 10: A Jewish Hellenistic Reinterpretation of Early Israelite History through Sapiential Lenses” (Ph.D. Diss.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2010).

Grabbe, L. L. *Wisdom of Solomon*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Gregg, J. A. F. *The Wisdom of Solom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09).

Kolarcik, M. "The Book of Wisdom," L. E. Keck (ed.),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5 (Nashville: Abingdon, 1997), 435-600.

Larcher, C. *Le Livre de la Sagesse ou la Sagesse de Solomon*. 3 vols. (Paris: Gabalda, 1983-85).

Peerbolte, B. J. L. "The Hermeneutics of Exodus in the Book of Wisdom," R. Roukema/B. J. L. Peerbolte/K. Spronk/J.-W. Wesseliusin (eds.), *The Interpretation of Exodus: Studies in Honour of Cornelis Houtman* (Leuven, Paris, Dudley MA: Peeters, 2006), 97-116.

Philo. *Philo*. 10 vols. (London: Heinemann, 1927-62).

Reese, J. M. *Hellenistic Influence on the Book of Wisdom and its Consequences* (AB 41;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70).

Reider, J. *The Book of Wisdom*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7).

Schwenk-Bressler, U. *Sapientia Salomonis als ein Beispiel früh-jüdischer Textauslegung: Die Auslegung des Buches Genesis, Exodus 1-15 und Teilen der Wüstentradiation in Sap 10-19*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1993).

Wan, Sze-Kar. "Mercy, Merciful," K. D. Sakenfeld (ed.), *The New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Vol. 4 (Nashville: Abingdon, 2009), 46-49.

Winston, D. *The Wisdom of Solomon* (Garden City: Doubleday, 1979).

## 검색어

솔로몬의 지혜서  
하나님의 자비  
자유의지  
지혜문학  
신구약중간시대

## Understanding God's Mercy in the Wisdom of Solomon

Samuel Cheon, Ph.D.  
Professor, Department of Christian Studies  
Hannam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find out Pseudo-Solomon's understanding of God's mercy in the Wisdom of Solomon 11:15-12:27, where its author presents God who provides mercy upon even the wicked, the Egyptians and Canaanites, as well as the righteous, the Israelites. To do so, I analyze the text exegetically, apply his presentation of God's mercy to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anti-Jewish riot in Alexandria in 38 C.E., and find out its social function.

I insist that Pseudo-Solomon's idea of God's mercy reflects universalism. That is to say, God's mercy is impartially paid on both the just and the wicked, because God, as the Creator with unlimited power, takes care of the creatures. Such a way of providing mercy is also the way of God's punishing sinners, because it is also the way the wicked are enabled to realize their sins and to believe in God. Taking the opportunity of their committing sins, God gradually punishes them for their repentance. Nevertheless, they never repent, because they do not have reasonable discernment. As a result, they cannot escape God's final judgment. This means that Pseudo-Solomon recognizes the free will of the wicked, even though he exaggeratedly describes their inborn nature as evil. On the other hand, the righteous quickly repent by being lightly punished and return to God, through which they realize that the just should not only love human beings but also seek God's mercy with their repentance even in the context of their committing sins.

Through such an idea of God's mercy, Pseudo-Solomon would try not only to make the Alexandrian Jews, who suffered by the anti-Jewish riot in 38 C.E., find their self-identity, but also to suppress their intention of retaliating upon their enemies and their expectation of the attackers' immediate destruction.

### Keywords

Wisdom of Solomon

God's mercy

free will

wisdom literature

intertestamental period

■ 투고일: 2016년 1월 16일

■ 심사일: 2016년 1월 31일

■ 게재 확정일: 2016년 2월 9일